

1. 교환학생 현지대학 신청서 작성(0.5장~1장)

APPLICATION PROCESS

✓ APPLICATION

- **Deadline: 30.10.2025**
- All nominated students MUST submit our [online Application Form](#).

There are supporting documents that you will have to prepare and upload on the online form (the details of each document are provided on the application form):

- Copy of identity document (passport or ID)
- Passport-sized photo
- Proposed study/placement plan
- Declaration of insurance responsibility
- Motivation letter (in English or Spanish)
- Academic Transcript of Records (optional)

We recommend you to **start the application as soon as possible**, to allow time for questions or clarifications. **We will only consider the applications received within the deadline!**

① 현지대학 교환학생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제출한) 서류

- **영문 성적증명서(Transcript) 및 재학증명서(Certificate of Enrollment)**: 본교에서의 학업 이수 및 성적 현황과 학생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필수 서류로, 영문으로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특히 재학 증명서의 경우, 학교장 인감이 컬러로 날인된 서류가 필수로 요구되어 이를 유의하여 출력 후 제출했습니다.
- **여권 사본(Passport Copy)**: 신원 확인을 위해 파견 기간보다 만료일이 충분히 남아 있는 여권의 인적사항 페이지를 스캔하여 첨부했습니다.
- **공인어학성적표 또는 언어 능력 확인서**: 현지 대학의 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어학 자격(영어 및 현지어 코스 요구 기준)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했습니다. 스페인의 대학이지만 특정 레벨 이상의 어학 코스가 아닌 이상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므로, 이에 맞춰 공인어학성적표를 준비했습니다.
- **현지 대학 지원서(Application Form)**: 대학 자체 온라인 포털을 통해 개인 인적사항, 본교 전공, 파견 희망 학기 등을 기재하여 신청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지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이유와 지원 동기 등을 영어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하여 업로드했습니다.
- **교환학생 학업계획서(Study Plan) 및 서약서**: 파견 목적과 현지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대략적인 과목 리스트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했습니다.

② 현지대학 교환학생 신청 프로세스에 대해 작성

- 1) 한림대 합격 및 추천(Nomination)
- 2) 현지 대학 계정 생성 및 온라인 지원(노미네이션 이후, 현지 대학에서 계정 생성 정보 및 과정,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보내주기에 메일을 받은 후 시작하시면 됩니다.)
- 3) 서류 업로드
- 4) 입학허가서(Acceptance Letter) 수령

③ 준비하는 동안 가장 어려웠던 부분

교환학생을 준비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비자 신청 및 발급 과정'이었습니다. 교내 프로그램 선발 이후의 비자 취득 단계는 학교의 지원 없이 온전히 학생 개인의 책임하에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정보 수집부터 서류 제출까지 홀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스페인 비자는 요구하는 제출 서류의 종류가 매우 방대할 뿐만 아니라, 아포스티유 발급이나 번역 공증 등 혼자 준비하기에는 까다롭고 생소한 행정 절차가 많았습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의 수많은 후기와 커뮤니티를 수도 없이 검색해야 했고, 정해진 기한 내에 완벽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준비 과정에서 심리적인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복잡한 행정 절차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도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2. 비자 및 항공 (0.5~1장)

Embajada de España en Seúl: 주한스페인대사관,영사과/비자
(주한 스페인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하신 분만 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1여권+1예약)

주한 스페인 대사관 영사과에 비자 신청시 제출할 서류 (다음의 순서대로 제출해 주세요)

필요서류	유효기간	복사여부	
비자신청서: National Visa Application Form. 주한 스페인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X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 비자 신청서에 부착할 것	6개월	X	
여권: 출국예정일로부터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으며 비자종이가 2장 이상 남아 있어야 함		O	
스페인초대장: 1부 4번 중 택 1 : 학교정보 및 비자신청자의 개인정보 (성함, 여권번호 필수) 그리고 학업기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컬러스캔본으로 비자 신청은 가능하되 비자 수령시 원본은 필수로 제출해야 함	발행일로부터 3개월	O	
1. 학생비자: 스페인 학교에서 발행한 입학허가서 원본			
2. 무급인턴: 스페인 회사에서 발행한 무급인턴초대장 원본			
3. 무급연구원: 스페인 학교에서 발행한 무급연구원 초대장 원본			
4. 무급교원교수: 스페인 학교에서 발행한 무급교원교수초대장 원본			
스페인 거주지 증명서: 5번부터 8번 중 택 1			
5. 거주지 보장 증명서: 스페인 학교에서 보장해주는 거주지 증명서 원본			
6. Acta de Manifestaciones: 위숙할 경우 입주인이 스페인 공중 사무실에서 공증받은 서류 원본	발행일로부터 3개월	O	
7. 임대계약서: 임대계약서 원본			
8. 호텔 예약 확인서: 스페인에 가서 찾을 경우 숙박업체 최소 30일 예약 확인서 (호텔, 호스텔 등)			
여행자보험증서: 스페인 전체 체류기간 동안 Repatriation 항목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가 총 30,000유로 이상 보장되는 보험. Repatriation 항목이 보험증서에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발행일로부터 3개월	O	
자금증명서: 9번부터 10번 중 택 1 : 스페인 현지에서 체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함			
9. 자비일 경우	소득증명서: 직년 또는 올해 소득에 대한 증명 서류, 해당 국가 아포스티유 받아야 함. (기준: 연 20,000,000원)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표준재무제표, 회사월급증명서 등 은행 계좌 잔고 증명서. (기준: 20,000,000원 이상) 거래내역서: 잔액잔고증명서에 대한 거래내역서 3개월, 예금 또는 적금일 경우 처음 금액 넣은 날짜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서. (국문발급 가능)	비자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6월 이내 (수영 및 공휴일 제외)	O X
10. 자비가 아닐 경우 ※상세설명참고	재정보증서: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스페인어로 타자 작성 후 재정보증인이 공증사무실에서 자필서명공증 받은 뒤 해당 국가 아포스티유 받아야 함.. 소득증명서: 직년 또는 올해 소득에 대한 증명 서류, 해당 국가 아포스티유 받아야 함. (기준: 연 20,000,000원 이상)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표준재무제표, 회사월급증명서 등 은행 계좌 잔고 증명서. (기준: 20,000,000원 이상) 거래내역서: 은행 계좌 잔고 증명서에 대한 거래내역서 3개월, 예금 또는 적금일 경우 처음 금액 넣은 날짜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서 (국문발급 가능)		O X
최종학력증명서: 졸업·제학·휴학증명서, 해당 국가 아포스티유 받아야 함. 만약 스페인에서 어학공부를 했을 경우에는 추가서류로 어학원 증빙 원본 서류 같이 제출해야 함	발행일로부터 3개월	O	
지원금 증명서: 스페인 체류기간 동안 학교, 회사, 국가 등 한 기관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제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받아야 함	발행일로부터 3개월	O	
스페인 비자 복사본: 예전에 스페인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경력이 있는 자만 제출		O	
비자비용: 주한스페인대사관 홈페이지 확인		O	

① 파견국가 비자 취득 방법

1) 대사관 방문 예약: 주한 스페인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비자 인터뷰 및 서류 제출을 위한 방문 예약을 잡아야 합니다. 예약 인원이 항상 물리기 때문에 파견이 확정된 직후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2) 비자 서류 준비: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필수 서류들을 철저하게 구비해야 합니다. 주요 서류로는 비자 신청서, 여권 및 여권 사본, 현지 대학의 초대장인 공식 입학허가서(Acceptance Letter), 그리고 스페인 현지에서 보장되는 체류자 보험 증서 등이 있습니다.

3) 공증 및 재정 증명 서류 마련: 대한민국 국적 서류의 경우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 및 스페인어 번역 공증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현지 체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은행 잔고 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재정 증명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4) 대사관 방문 및 비자 신청: 예약된 날짜에 주한 스페인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비자 접수증을 수령하게 되며, 이 접수증은 추후 비자 합격 확인 및 수령 시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잘 지참하고 있어야 합니다.

5) 비자 수령: 비자 발급이 완료될 시점이 되면 접수증에 적힌 링크나 안내된 페이지를 통해 합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승인을 확인한 후, 대사관에 재방문하여 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최종 회수합니다.

② 비자 취득에 걸리는 시간

대사관 측에서는 보통 비자 발급까지 3~4주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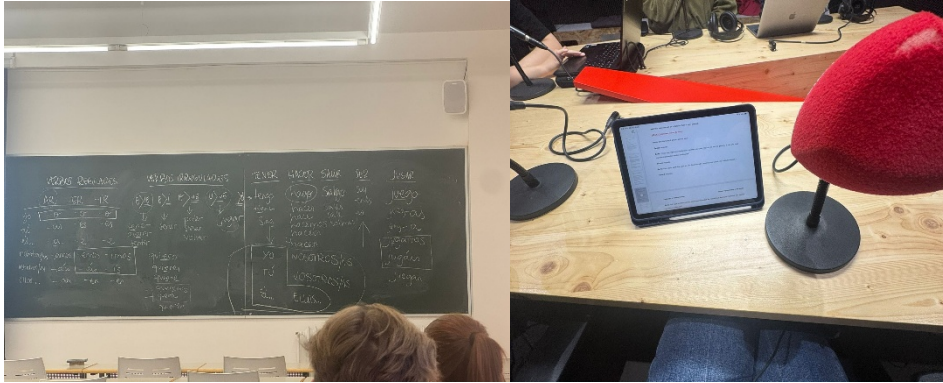
제가 비자를 신청했을 당시에는 스페인 현지 이민국 및 행정 부서의 승인 절차가 전반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사관에서 안내받은 예정 시기보다 비자 발급이 몇 주나 늦어졌고, 출국 일정을 맞추지 못해 기예약해 둔 항공권을 여러 번 취소하고 변경하며 심리적으로 큰 부담감을 겪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대사관의 공식 안내 기간 맹신하기보다는, 최소 한 달 반(6주) 이상, 넉넉히는 두 달 이상의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최대한 선제적으로 비자 신청 일정을 계획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③ 비자 취득 시 유의사항

- **철저한 사전 체크리스트 작성 및 공증 대상 서류 확인:** 스페인 비자는 요구하는 서류의 양이 방대하지만, 모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나 번역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사관에서 안내한 '비자 필수 서류 목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와 공증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먼저 분류하고 정리한 뒤, 본격적인 발급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대사관(영사과) 공식 최신 가이드라인 확인:** 영사과에서 공지하는 비자 구비 서류 목록 및 세부 기준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블로그나 오래된 합격 후기의 정보를 그대로 맹신하기보다는, 반드시 본인이 파견되는 해에 대사관 홈페이지에 새로 업데이트된 최신 목록을 기준으로 삼고 준비해야 서류 반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비자 발급 지연에 따른 리스크 대비 (항공권 예매 유의):** 앞서 언급하였듯 스페인 비자는 예상치 못한 현지 행정 처리 지연으로 비자가 늦게 나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비자가 완전히 발급되기 전 항공권을 예매할 경우, 일정 변경으로 인한 취소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일정 조율이 유연한 티켓을 고르거나 타임라인을 매우 넉넉하게 잡아야 합니다.

3. 수업 정보 (1장)



① 수강 과목, 수업 내용

- **Artificial Intelligence in Marketing and Communication (경영학 전공):** 최신 마케팅 산업 트렌드에 발맞추어 AI 기술의 발전과 변화 양상을 심도 있게 학습했습니다. 이론에 그치지 않고 생성형 AI 툴을 실무 마케팅 프로세스에 접목하여,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그룹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수행했습니다.
- **Languages of Communication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전공):**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인 다양한 기호학적 기호와 여러 가지 언어적 메커니즘을 배우는 이론 수업입니다. 전반적으로 팀 프로젝트 중심의 커리큘럼이었으며, 매주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팀별 발표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는 팀원들과 함께 기획한 주제로 '팀별 팟캐스트(Podcast)'를 직접 제작 및 녹음하는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 **Video Workshop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전공):** 영상 제작의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무 위주의 워크숍 수업입니다. 개인 과제로서 독창적인 컨셉의 '개인 뮤직비디오'를 1편 제작하였고, 이와 더불어 다국적 학생들과 협업하는 '그룹 뮤직비디오 제작 프로젝트'를 병행하며 비주얼 디렉팅과 영상 콘텐츠 연출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 **교양 어학 코스 (Spanish A1 & Catalan A1):** 카탈루냐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현지인들과 최소한의 소통을 도모하고자 기초 스페인어(A1)와 까탈루냐어(A1)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기본적인 일상 회화 문형과 문화적 배경지식을 익히는 균형 잡힌 언어 수업이었습니다.

② 수업의 분위기

개설된 모든 전공 수업은 현지 학생들과 다양한 국가에서 온 교환학생들이 자유롭게 섞여 수강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 **글로벌 소통 환경:** 기본적으로 모든 전공 강의와 과제, 피드백은 100% 영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스페인어나 까탈루냐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학업을 이수하는 데

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현지 학생들 역시 영어 구사력이 뛰어나 팀 프로젝트나 일상적인 소통을 진행할 때 영어만으로도 원활한 협업이 가능했습니다.

- **자유롭고 능동적인 토론 문화:** 한국 대학의 강의식 수업 분위기와 비교했을 때, 현지의 수업 분위기는 매우 자유롭고 역동적이었습니다. 정답만을 도출해 내려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교수님들 역시 학생 개개인의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의견을 경청하는 데 큰 흥미를 보이셨습니다. 덕분에 학생들은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데 거침이 없었으며, 상호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평적이고 산발적인(활기찬)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③ 수업강도 및 어학 능력 요구도

전공 수업의 경우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학업을 따라가는 데 큰 무리가 없으나, 현지 생활과 언어 수업의 강도를 고려했을 때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전공 수업 요구도:** 기본 강의와 조별 토론, 영상 및 팟캐스트 제작 등 모든 평가 요소가 영어 기반이므로 기본적인 영어 소통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간혹 현지 학생들과 협업하는 경우, 스페인어로 소통하거나 완벽한 영어 소통이 결여되는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진행되므로 큰 지장은 없습니다.
- **현지 언어(스페인어/카탈루냐어) 학습의 필요성:** 교양으로 수강한 스페인어의 경우, 한국에서 기초적인 문법과 어휘를 미리 선행 학습하고 파견되었기에 현지 A1 레벨 수업을 어렵지 않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었던 '카탈루냐어' 수업의 경우 교수님의 강의 진도와 현지어 위주의 설명으로 인해 초반 흐름을 따라가는 데 상당한 한계를 느꼈습니다. 간혹 현지 언어 교수님 중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분도 계시므로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파견교를 선택하고 떠나기 전, 자신이 생활하게 될 국가 및 지역의 기초 언어(특히 스페인어 및 카탈루냐어)는 최소한의 기초 문형이라도 미리 독학해 오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는 단순히 수업 진도를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교환학생 라이프에 임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4. 캠퍼스 생활 정보 (1~2장)



① 기숙사, 도서관, 식당 등의 학교의 전반적인 시설 및 서비스

파견 대학의 캠퍼스는 한국의 대학 구조와 달리 여러 건물이 도심 곳곳에 유기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공에 따라 주로 상주하는 건물과 이용하게 되는 주변 편의시설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 **도서관 및 교내 학습 공간:** 학업과 연구를 위한 공간이 체계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림대학교의 스터디룸 시스템과 유사하게, 학생들이 사전에 예약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룹 스터디룸 및 협업 시설이 각 건물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조별 발표 준비나 전공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공간적 제약 없이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 **교내외 식음료 시설의 특징:** 캠퍼스 내부에 대규모 학생 식당이나 카페가 일체형으로 운영되는 한국 대학과 달리, 교내에 자체 식당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학교 바로 주변에 학생들이 공강 시간을 활용해 빠르게 방문할 수 있는 일식당, 브런치 카페, 로컬 레스토랑 등이 밀집해 있어 식사를 해결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 **건물 배치 및 동선:** 앞서 언급했듯 캠퍼스 건물들이 도보로 수 분 거리씩 떨어져 존재하기 때문에 동선 파악이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 중심부에 위치한 메인 건물(F동)을 주로 이용했기에, 다양한 교내 행정 서비스와 학업 공간, 그리고 주변 식당가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한층 원활하고 효율적인 캠퍼스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② 필드트립, 학생 활동 등 참여한 활동 정보

한국(본교)에서 국제교류 관련 버디 프로그램의 회장 및 일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던 경험과 비교해 보았을 때, 파견교의 학생 교류 프로그램은 운영 방식과 참여도 면에서 다소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공식 환영 및 송별 행사:** 학기 초와 말에 국제처 및 교류 단체에서 주관하는 공식 웰컴 식사(Welcome Dinner)와 작별 파티(Farewell Party)가 개최되어 초기 정착과 마무리에 현지 학생들과 다른 교환학생들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 **프로그램 참여의 현실적 제약:** 공식적인 웰컴/작별 행사를 제외하면, 현지 교류처에서 진행하는 대다수의 공식 필드트립 및 문화 체험 행사들이 유료(참가비 본인 부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매년 모든 공식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다소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 **소규모 버디 활동 및 아쉬운 점:** 현지 버디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주최하는 소규모 게임 행사나 간단한 교류 모임에 시간이 날 때마다 참여했습니다. 비록 대규모 인원은 아니었지만, 소

소하게 모여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파견 대학의 전반적인 분위기상 현지 학생들과 교환학생 간의 유대감이나 버디 프로그램 자체의 활성화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지 학생들과 깊이 있게 교류하기보다는 교환 학생들끼리 뭉쳐 시간을 보내는 비중이 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다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③ 식당, 쇼핑, 주변 관광 등 학교 인근 지역 정보

- **인근 편의시설 및 쇼핑:** 학교 중심부를 기준으로 도보 10분 이내의 거리에 다양한 로컬 레스토랑과 카페는 물론, 대형 마트와 의류 매장이 인접해 있어 일상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문화생활을 누리기에 매우 편리한 환경입니다.
- **바르셀로나로의 뛰어난 접근성:** 카탈루냐 지역의 중심지인 바르셀로나까지 대중교통(버스)을 이용해 약 1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정기 교통카드를 활용해 교통비 부담 없이 원할 때마다 바르셀로나의 풍부한 문화, 예술, 축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은 강력한 메리트였습니다.
- **광범위한 근교 및 해외 여행 인프라:** 지역 내 버스 노선이 잘 발달해 있어 아름다운 중세 도시 지로나(Girona)나 수려한 해안가인 코스타 브라바(Costa Brava) 등 스페인 카탈루냐 내의 다양한 명소들을 당일치기로 손쉽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바르셀로나로 이동 후 기차(RENFE)나 공항을 이용하면 스페인 타 지역(발렌시아, 알리칸테 등)과 노르웨이를 비롯한 유럽 전역으로의 확장이 용이하여, 파견 기간 동안 다채로운 문화적 식견을 넓히는 데 최상의 요충지였습니다.

5. 홍보 (0.5장)



파견 대학의 환경 특성상 현지 학생들과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가 많지 않아 대규모의 전형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공 수업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본교로 파견 예정인 현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멘토링을 제공하고, 다국적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내실 있는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 **수업 내 교류(현지 학생 대상):** 복수전공 과목인 'Languages of Communication' 수업에서 팀원들과 함께 팟캐스트 제작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이때 협업하며 가까워진 현지 학생들 중 다음 학기에 한림대학교로 교환학생 파견을 앞둔 친구들이 있어 자연스럽게 본교를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낯선 한국으로의 파견을 앞두고 막연함을 느끼던 현지 학생들에게 한림대학교의 최신 캠퍼스 시설, 기숙사 정보, 수강 신청 팁 및 한국의 대학 생활 문화 등을 상세히 공유해 주었습니다.
- **일상 속 교류(외국인 교환학생 대상):** 비록 로컬 학생들은 아니었지만, 매일 일상을 공유하던 다양한 국가의 교환학생 친구들과 깊은 유대를 쌓으며 한국 문화를 알려주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예절, 음식, 트렌드 등 자국 문화와의 차이점을 흥미롭게 스토리텔링하여 전달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친구들이 향후 한국으로의 방문·유학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도록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6. 자기평가 (1~2장)



- ① **교환학생 기간 동안 느낀 점**
- ②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필요성**
- ③ **파견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부분과 해결방법**

- 행정적인 절차만큼이나 저를 깊게 흔들었던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아시아인으로서 느낀 심리적 소외감과 언어적 장벽으로 인한 외로움'이었습니다.

기대와 현실의 괴리, 그리고 소외감의 극복: 파견 대학은 동양인의 비율이 극도로 적은 환경이었습니다. 출국 전 품었던 교환학생 생활에 대한 거대한 기대감과 달리, 현지에서 아시아인으로서 무리에 선뜻 녹아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영어마저 완벽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스스로 위축되었고, 외모도 문화도 다른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는 것이 무척 두렵고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정면으로 다가간 소통: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는 강박과 높은 기대감을 내려놓으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두려워하기보다 투박하더라도 진심을 담아 먼저 다가가기 시작하자, 상대방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할수록 인종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초반의 외로움이 무색할 만큼 학기 말에는 그 누구보다 헤어짐이 아쉽고 그리운 소중한 인연들이 되었습니다.

- **버디 친구들과의 재회:** 파견 기간 중 가장 의미 깊었던 순간은 과거 한국에서 본교 버디 프로그램을 통해 매칭되어 인연을 맺었던 외국인 친구들의 국가 직접 찾아가 재회했을 때였습니다. 버디 친구들이 한국에 머물 당시 버디로서 한국 문화를 알려주고 정착을 도왔던 포지션에서 유럽 현지에서는 완벽히 반대가 되어 제가 그 친구들에게 전폭적인 도움과 따뜻한 환대를 받는 신기하고도 감동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문화적 교류란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의 진정한 유대감임을 깨달았고, 과거의 베풀이 부메랑처럼 거대한 환대로 돌아오는 것을 보며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주는 인간적 가치를 깊이 실감했습니다.
- **혼자만의 여행이 주는 배움과 성장:** 유럽 교환학생 특성상 수많은 여행을 경험하게 되지만, 모든 여정을 누군가와 늘 동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혼자 떠나는 여행이 많아졌고, 그 안에서 외로움을 다스리는 법,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후배들에게도 모든 여행을 타인에게 의존하기보다, 혼자만의 여행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내면을 확장하는 귀중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보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다.